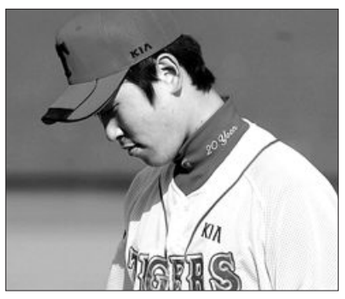
윤석민 너마저…

아킬레스건 부상…수술·장기휴식 필요

KIA "시즌 후 수술 여부 결정"



KIA 에이스 윤석민(21·사진)의 아킬레스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수술 또는 1년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시즌 윤석민의 선발 풀타임 출장은 어렵게 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16일 "시즌이 끝난 뒤 윤석민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만성적인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감독은 "아킬레스건 부상은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다. 후반기 들어 기본 훈련인 러닝도 거의 못했다. 결국 하체가 부실해졌고 체력도 저하돼 후반기엔 구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내년 시즌도 마찬가지다. 안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완쾌를 시켜야 할 것 같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수술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아킬레스건 수술은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선수 생명은 물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수술 중 하나다.

수술 외 유일한 방법은 휴식이다.

아킬레스건 부상은 1년 정도 쉬면 나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통증이 찾아왔을 때도 병원에서는 "수술보다는 염증을 제거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 보름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투구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전 시즌을 소화하기도 힘들어졌다. 지난해까지는 불펜에서 짧게 던지면서 견뎌냈지만, 올 시즌 선발로 전업한 뒤 체력적 한계마저 느끼고 있다.

최근엔 구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윤석민은 지난 11일 광주 한화전에선 선발등판 하자마자 1회 첫 세 타자에게 연속 몸에 맞는 공을 던지는, 프로야구 26년 역사상 처음으로 일을 벌였다. 시즌 16패째, 최다패 투수라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윤석민은 이날 모자와 유니폼, 그리고 스파이크까지 그대로 신은 채 구장 라커룸 샤워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윤석민은 "병원에선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주 아프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결국 현재로선 장기간 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 데, 팀 사정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

팀의 1선발을 맡고 있는 윤석민은 "한 시즌 정도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팀 선발 로테이션상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시즌이 끝나면 코칭스태프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신인 박상신 몸값 6천500만원

화순고 김선빈 5천만원 입단 계약

KIA 타이거즈는 16일 2차 4순위로 지명한 외야수 박상신(18·제주관광고)과 계약금 4천500만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6천500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박상신은 186㎝, 86㎏의 좋은 몸매를 지니고 있으며 배팅 파워가 뛰어난 선수다.

KIA는 또 2차 5순위로 지명한 포수 백용환(18·장충고)과 계약금 4천만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6천만원에, 2차 6순위인 김선빈(18·화순고)과 계약금 3천만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에 계약했다.

180㎝, 85㎏의 백용환은 2년간 장충고 주전 포수로 활약하며 황금사자기 2연패를 비롯해 전국 대회 4차례의 우승을 이끌었다.

블로킹 및 투수리드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2루 송구가 장점으로 꼽힌다.

164㎝, 63㎏의 다소 작은 체구를 지닌 김선빈은 빠른 발과 강한 어깨가 돋보이며, 특히 작전 수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빈은 2년 연속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대표 왕기춘(아래)이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사흘째 남자 73㎏급 결승전에서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를 상대로 금빛 선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왕기춘 '유도왕'

세계선수권 男 73㎏급 우승…北 계순희도 금

'겁없는 10대' 왕기춘(19·용인대)과 북한의 '유도 영웅' 계순희(28)가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왕기춘은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73㎏급 결승전에서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를 맞아 연장 접전 끝에 다리잡아 메치기로 효과를 따내 우승을 차지했다.

왕기춘은 경기 시작 1분20초만에 배대뒤치기로 유효를 따내 앞서갔으나 약 1분여 만에 업어치기로 유효를 빼앗겨 연장전에 들어갔다. 이 업어치기는 처음에 절반이 선언됐으나 곧 유효로 정정돼 왕기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장에 들어간 왕기춘은 1분55초만에 상대 공격을 살짝 피하며 맘마들리의 다리를 잡아당겨 천금 같은 효과를 따냈다. 왕기춘은 승리가 확정된 뒤 한 손을 불끈 움켜쥐며 기쁨의 포효를 내질렀다.

한국 유도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03년 일본 오사카 대회 최민호, 이원희, 황희태에 이어 4년 만의 일이다.

여자 57㎏급 계순희는 결승에서 이사벨 페르난데스(스페인)를 경기 시작 1분05초만에 발뒤축걸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계순희는 2001년 독일 뮌헨대회 52㎏급 우승, 2003년과 2005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에서 57㎏급을 연달아 제패한 뒤 개인 통산 4번째 세계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계 순 희〉

2006년 결혼 뒤 국제 대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계순희는 변함없이 날랜 모습으로 비교적 손쉽게 우승, 2008년 올림픽과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전망을 밝게 했다.

이날 여자부에서는 두 번의 남북대결이 열려 모두 북한 선수들이 웃었다.

계순희는 4회전에서 이은희(28·성동구청)와 만나 서로 지도만 3개를 주고받는 탑색전 끝에 경기 종료 38초 전 이은희가 지도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또 52㎏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경옥(24·철원군청)은 2006 도하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안금애에게 허벅다리 되치기 절반으로 져 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김경옥은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 쿼터를 따냈다.

스포츠캘린더

17일(월)

▲리우 세계유도 선수권대회(08 : 30·MBC ESPN)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8 : 55·Xports)

▲회장기 실업핸드볼(14 : 10·KBS1)

▲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 농구대회 결승(14 : 2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 : 00·MBC ESPN)

18일(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더비카운티-뉴캐슬〉(04 : 00·MBC ESPN)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내일 개막

경주서 3일간 열려…생활체조 등 10개 종목

전국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 '2007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8일부터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3일간 열린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8일 오후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열전 3일에 돌입한다. 이번체육대회에는 16개시도 5천여명의 선수단이 출전, 축구,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정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등 10개 정식종목에서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오주)는 10개 종목에 선수 132명, 임원 34명등 16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게 된다.

실버층의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치러오고 있는 '시·도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발전시켜 치르는 첫 대회다.

참가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번대회 참가자는 내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